

지역 소식통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고창군, 우수 지자체 선정

민선 7기 유기상호의 사회복지 정책이 코로나19시대 촘촘한 공동체 안전망을 구축하며 순항하고 있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저소득층 발굴과 지원을 통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운영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전반에 걸쳐 실시됐다.

고창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2500세대 저소득층에게 28억원의 한시생활지원금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조기 발급했다. 또 상반기에 90%이상의 사업비가 지역 상권에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실적이 높이 평가됐다.

또 지역 식당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이동이 있는 다자녀,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 외식이 어려운 가정 52가정 185명을 추천받아 외식쿠폰 사업을 지원했다. 쿠폰을 받은 가정은 기념일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각 사용기간 내 가족별로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밥상머리 교육
24일까지... 21가정 대상

부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부안군 홈페이지와 네이버폼을 이용하여 신청자를 접수받은 결과 총 39가정(156명)이 참가를 신청하였으며, 초등생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21가정(85명)을 선발하였다.

12월 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밥상머리 교육'은 가족의 다양한 성격유형을 파악하고 원만한 소통기술을 익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온라인 교육과 크리스마스 화분 만들기, 가족음식 만들기, 행복나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고용복지센터 문을 연다

21일부터... 일자리·복지지원·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차질없이 수행

고창고용복지센터(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330, 선운사 불교화관 1층)가 이달 21일 새롭게 문을 연다.

이번에 문을 여는 고창고용복지센터에는 고용노동부, 고창군 전복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가 입주하여 일자리(고용)·복지·서민금융서비스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와 구인·구직자를 위한 일자리(인력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롭게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담당하고, 1월 중순부터는 실업급여, 복지지원, 서민금융 업무도 추가로 수행하여 본격적으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심층상담·직업훈련·취업지원과 함께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김두경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고창군민 여러분들이 부안까지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고용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국민취업제도에 발맞춰 군민들에게 고용복지서비스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21시 이후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 현장 단속 활동을 펼친다.

정읍 산내면, 게이트볼장 시설물 점검·환경정비

산내면은 지난 14일 연말을 맞아 산내면 게이트볼장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과 환경정비 활동에 나섰다



산내면은 지난 14일 연말을 맞아 산내면 게이트볼장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과 환경정비 활동에 나섰다.

이날 환경 정비 활동에는 면 직원들과 게이트볼 회장 등 8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그동안 누수로 더러워진 건물 외벽과 창문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노후 된 간판과 물받이를 교체했다.

또 주변 잡목을 제거하고 쌓여 있는 낙엽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 정비에 나섰다. "추운 날씨에도 환경 정비에 나서 주민 면사무소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린다"며 "회원들도 앞으로 시설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춘 면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은 물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야간 영업행위 특별 현장 단속

28일까지 코로나 겨울철 대유행 선제적 차단 올인

정읍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21시 이후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 현장 단속 활동을 펼친다.

이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1,368개소와 휴게 음식점 289개소, 제과점 34개소, 유흥다란주점 111개소 등 총 1,812개소다.

관련해 시는 지난 주말 총 9개 반 18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수성지구와 연지지구, 상동 미소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21시 이후 영업장 내 영업행위 여부와 방역지침 이행 여부에 대해 일제 특별 단속을 벌였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 음식점과 다중이용이 모이는 인구 밀집 지역 내 음식점 등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각 업소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순회배상(구 상권)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라북도 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음식점과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은 21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21시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허성욱 보건소장은 "많은 업소가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필수적 외출을 제외한 모든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격포관광단지 우수협상대상자 양우건설 선정

평가위 심의·평가 결과

부안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부안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우수협상대상자로 양우건설(주)이 선정됐다.

군은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심의·평가 후 우수협상대상자를 선정·발표했다. 우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양우건설은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

기 위한 사업협약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체결해야 한다.

양우건설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2위 선정사와 협약을 진행하게 된다.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산 59-4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으로 면적은 138만 855㎡로 숙박시설, 골프장, 미니어처가든파크, 소극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문화와 전통을 살린 명품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부안 1번 밀접촉자... 역학조사

부안군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

15일 부안군 보건소는 부안 1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60대 A씨와 50대 B씨, 20대 C씨가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이 발현해 선별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추가확진자들은 지난 9일 부안 1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실시한 선별검사

에서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부안군 보건소는 추가확진자들을 군산의료원 입원조치 하고 자가격리지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현재 추가확진자들에 대한 동선파악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이 자가격리 중이어서 특별한 방문이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써 부안군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